

이란, 보·혁간의 긴장 고조

최근 이란의 강경보수파와 개혁파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으로는 하타미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을 두고 개혁파가 지배하는 의회와 법안승인권 가진 헌법수호위원회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9월 1일 의회에 제출되어 11월 6일 통과된 선거법 개정안은 사법부와 헌법수호위원회가 선거직 입후보자의 적격성을 승인하는 권한을 없애는 것이었다¹⁾. 또다른 법안은 9월 24일 의회로 제출되었는데, 대통령에게 사법부 관리들을 경고 또는 징계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아울러 의회, 행정부, 사법부가 선정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법원의 판결을 번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개혁파와 대통령은 이 법안들을 헌법수호위원회가 거부하면 의회 의원들과 대통령이 사임하고 국민들의 신임투표에 부치겠다고 위협하였다. 이는 개혁을 가로막는 보수파에 대한 개혁파의 최후 통첩인 셈이다. 그러나 헌법수호위원회는 이 법안들을 거부할 것이 확실하며 의회와 헌법수호위원회의 이견을 조정하여 최종 결론을 내리는 국정조정위원회(Expediency Council)도 최고지도자 하메네이의 숨은 뜻에 따라 이 법안들을 거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하메네이는 하타미 대통령이 주장한 국민의 뜻에 따르는 민주주의에 대하여 소수 집단의 독재주의로 평가하고 이란의 체제를 종교적 민주주의라고 언급함으로써 그 속뜻을 드러내었다. 따라서 두 법안이 모두 거부되면 개혁파와 보수파간에 결전만이 남은 셈이 된다. 그러나 신학자 아가자리의 사형선고가 가져온 파장이 커지면서 개혁파의 입지가 강화되었기 때문에 두 법안이 일부 수정되어 승인을 받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사회적으로는 신학자 아가자리(Hashem Aghajari)가 체포되어 11월 6일 항소법원에서도 사형선고를 받음으로써 대학생 등의 시위가 크게 발생하였다. 아가자리는 지난 6월에 하메네이의 종교 최고지도자 자격²⁾을 문제시하는 발언

1) 헌법수호위원회는 선거에서 후보자의 승인, 선거의 감시, 선거결과에의 번복까지 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1985년에 전문가회의가 호메이니의 뜻에 따라 호메이니의 후계자로 지명하였던 대 아야톨라인 몬타제리(Hosein Ali Montazeri)는 이미 1997년 12월 헌법수호위원회의 선거 입후보자 심사 및 거부하는 부당하다고 비난한 적이 있음.

2) 신학자는 오랜 수학기간을 거쳐 호자톨레슬람(Hojjatoleslam: 이슬람의 증거) 지위를 얻고 다시 연구와 연구업적을 보이면 아야톨라(Ayatollah: 신의 표시) 지위에 이른다. 그 위에는 오직 소수만이 될 수

을 하여 구금되었다. 아가자리가 속한 이슬람혁명기구 무자헤딘(Organization of Mujahedin of the Islamic Revolution: OMIR)은 이슬람 좌파의 입장에서 개혁과 쪽에 선다. 보수파는 OMIR를 헌법 무시, 국민의 종교감정 무시, 분열과 불화 조장 등의 이유로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바가 있어서, 사형선고는 아가자리에 대한 형벌로써 OMIR를 걸어 쓰러뜨릴 것을 보수파가 의도한 것이라는 의심도 받고 있다.

그러나 아가자리 석방을 요구하는 대학생들의 시위가 11월 9일에 시작되어 전국 주요 도시로 퍼지고 시위의 슬로건이 사법부 장관인 하세미샤루디(Ayatollah Mahmud Hashemi-Shahrudi)뿐만 아니라 개혁 노력에 좀더 강경한 자세를 취하지 못 하는 하타미 대통령, 보수파의 힘으로 간주되는 최고지도자 하메네이도 비난하는 선까지 나아갔으며 의회 의원 2명도 항의의 표시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문제가 체제 자체로 비화될 가능성까지 보이자 결국 하메네이는 판결의 재심을 지시하였다.

한편 강경보수파의 청년 전위세력인 히즈볼라(Ansar-i Hizbullah)는 보수파의 입장을 지지하는 시위를 벌였으며, 하메네이도 시위의 격화에 경계심을 가지고 사회가 불안해지면 하메네이에 충성하는 혁명수비대(Iranian Revolution Guards Corps: Pasdaran)와 민병대(Basij)가 개입할 것이라고 위협하기도 하였다.

시위의 확산은 실제로는 보수·개혁의 갈등뿐만 아니라 비공식적으로 실업자와 잠재실업자가 5~6백만에 이르러 실업률이 30%에 이른다는 실업의 만연, 빈부 격차의 확대, 차도르 채용의 엄격한 적용과 같은 경직된 사회규제 등이 대중적인 불만을 확산시킨 것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어떤 계기가 발생할 경우 사회에 격변이 일어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선임연구원 강준수
jkang@koreaexim.go.kr

있는 대 아야톨라(Grand Ayatollah)가 있는데 대 아야톨라는 시아파 이슬람교도에게는 복종(또는 행동지침)의 원천(source of emulation)이며, 30여 년에 걸치는 오랜 연구와 가르침, 높은 수준의 신학논문 집필 뒤에 다른 대 아야톨라들이 인정해주어야 될 수 있음. 하메네이는 호자톨레슬람이었고 호메이니 사망시 그를 최고지도자로 선출한 전문가회의(Assembly of Experts)가 아야톨라로 승격을 시켜주었을 뿐이어서 호메이니와 같은 대 아야톨라가 아님. 따라서 다른 신학자들이 보기에는 비록 정치적으로는 최고지도자이지만 실제로는 최고종교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해외에서라도 대 아야톨라가 하메네이의 종교적인 견해에 반대되는 견해를 밝히면 하메네이는 승복할 수 밖에 없는 입장임.